

지식재산부전공프로그램

학과홈페이지 : <http://ip-minor.kaist.ac.kr>

학과사무실 : 042-350-4222-3

개요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식을 갖춘 이공계 인력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이공계를 전공하는 카이스트 학부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재산권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학부 부전공의 형태로 제공되는 지식재산권 교육의 의미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학부 부전공 과목으로서의 가치

- 지식재산권은 국가의 산업 및 경제 정책의 중심 이슈이다.
- 산업의 패러다임이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에서 지식 산업구조로 서비스업 및 혁신 중심산업구조로 변천해 감에 따라 모든 경제 분야에 걸쳐서 지식재산권은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되어가고 있다.
- 특히 특허제도의 경우 국가 기술혁신의 활력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 지식재산권에 관한 기본 지식과 이해는 카이스트 학부과정 학생들에게 전공분야에 상관없이 새로운 필수과목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2) 미래의 이공계 및 첨단기술경영 전문가들이 지식재산권을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필수적인 소양

- 현대 지식정보시대에서는 현물 대비 지식재산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이 시장진입 장벽을 구성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대변하고 있다.
- 제품의 브랜드가 소비자 충성도를 이끌어 내어 시장 점유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 특허의 경우 갈수록 특허권 확보 노력과 권리행사가 활발해지고 있다.

(3) 미래의 지적재산권 전문가로 성장할 학생들에게 예비 교육과정을 제공

-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이공계 학생들의 법조계 진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권 거래 및 권리행사 활동의 허브가 되어가고 있다.
-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친 특허제도의 변화의 결과, 특허출원을 확대하고 특허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되어, 특허거래 활동의 양과 거래금액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커리큘럼은 부전공자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지식재산권들을 통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접근하도록 훈련하며, 이론적인 지식과 실제적인 응용 능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돕고, 세계 주요 관할지역의 지적재산권 차이에 대한 비교(법)학적인 지식을 갖추어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 가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부전공자들은 각자의 장래 계획에 맞추어 지식재산권-관리자트랙 혹은 지식재산권-전문가트랙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에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지식재산부전공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의 목표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지식재산권들에 대한 통합적인 지식 제공 (Offering integrated knowledge about IP laws)
 - ◊ 여러 종류의 지적재산권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기술을 보호하고 관리전략을 세워야 하는 현실의 상황을 반영하여, 필수 4과목에서는 특허, 저작권, 상표, 산업기밀 등을 동시에 다루면서 각각을 선택했을 경우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식재산권법의 이론적인 기반에 실제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함 (Offering practical knowledge as well as theoretical basis of IP laws.
- 지식재산권-전문가트랙과 지식재산권-관리자트랙을 제공함 (Offering two tracks - “IP Procurement tract” for future IP professionals; “IP Management tract” for scientists, engineers, and business managers)
- 세계 주요 관할지역의 지적재산권 차이에 대한 비교(법)학적인 지식을 제공함 (Offering comparative IP knowledge in different jurisdic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Korea)